For God · For Nation · For Peace
KIMS Newsletter

제 301 호

2026 년 11 월 5 일

1. 해양이슈와 정책(1)

2. 해양이슈와 정책(2)

3. 해양이슈와 정책(3)

4. 해양이슈와 정책(4)

1. 전시작전통제권(OPCON): 한국과 미국의 입장 차이

▶ 발행기관: The Interpreter (Lowy Institute)

▶ 저　　자: Kuyoun Chung

▶ 일　　자: 2026년 10월 29일

▶ 개　　요

미국은 주한미군을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유연하게 활용하려 하고, 한국은 한반도 방위의 주도권을 확보하려 한다는 점에서 한-미는 서로 다른 이유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지지할 수 있음. 그러나 이는 주한미군의 독자적 작전이나 대만 유사시 투입에 대한 통제권까지 한국에 부여하는 것은 아님. 한국은 미군 전력의 한반도 밖 전환 배치에 따른 대북 억제력 약화와 국내 미군 기지·시설의 활용에 따른 미-중 갈등 연루를 모두 우려함. 따라서 한국은 전략적 유연성을 무조건 수용하거나 거부하기보다 자국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한반도 밖 작전에 대한 협의 절차를 명확히 하고, 한반도 방위에 필수적인 미군의 핵심 역량이 유지되도록 보장받아야 함.

원문링크 클릭

2. 후퇴해선 안 되는 대중국 정책

▶ 발행기관: Foreign Affairs

▶ 저　　자: Ali Wyne & Ryan Hass

▶ 일　　자: 2026년 10월 29일

▶ 개　　요

트럼프 행정부의 일관성 없는 대중 접근과 동맹 압박은 미국의 협상력과 신뢰를 약화시켰지만, 기존 강경노선으로의 복귀는 오히려 외교적 여지를 좁히고 동맹국의 불안을 키울 수 있음. 미국은 중국과의 경쟁에서 승리하는 것보다 미국에 유리한 공존 조건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함. 이를 위해서는 동맹국을 대중 경쟁의 수단으로 취급하지 않고 신뢰를 회복하는 한편, 우발적 군사충돌 방지와 AI 안전 분야에서는 중국과 협력해야 함. 아울러 핵심 광물·의약품 공급망의 대중 의존도를 낮추고 조선·로봇 등 국내 산업 역량을 강화하되, 안보 위험이 낮은 대중 기술협력과 투자는 선별적으로 활용하는 균형 잡힌 접근이 필요함.

원문링크 클릭

본 발간물은 한국해양전략연구소의 저작물로서 인용 시 표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For God · For Nation · For Peace
KIMS Newsletter

제 301 호

2026 년 11 월 5 일

1. 해양이슈와 정책(1)

2. 해양이슈와 정책(2)

3. 해양이슈와 정책(3)

4. 해양이슈와 정책(4)

<KIMS 카톡 채널>

3. 쿼드(Quad)가 동남아시아와 협력하는 방법

▶ 발행기관: The Strategist (ASPI)

▶ 저　　자: Arzan Tarapore 외 3인

▶ 일　　자: 2026년 10월 30일

▶ 개　　요

쿼드가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안보협력을 확대하려면 각국의 수요에 맞는 실질적 지원을 제공하면서 이들이 중국과의 갈등에 연루될 우려를 줄여야 함. 해양상황인식, 해경 협력, 인도적 지원과 재난구호는 역내 대응 역량을 높일 수 있지만, 전투 중심 활동은 군비경쟁이나 중국의 보복에 대한 우려로 수용되기 어려울 수 있음. 따라서 모든 사업에 쿼드 4개국이 참여하기보다는, 사업별로 일부 회원국과 동남아 국가들이 선택적으로 참여하거나 사업 주도국을 번갈아 맡는 등의 유연한 방식을 활용할 필요가 있음. 핵심은 지역 국가들과 지속적으로 협의하며 각국의 이해관계에 맞춰 협력 방식을 조정해 나가는 것임.

원문링크 클릭

4. 미국 방위산업은 중국의 군사력 증강 속도를 따라잡을 수 있을까?

▶ 발행기관: The Diplomat

▶ 저　　자: Luis Márquez

▶ 일　　자: 2026년 10월 30일

▶ 개　　요

대만해협 분쟁이 장기화될 경우 미국의 전쟁 지속 능력은 초기 무기 보유량보다 탄약을 보충하고 손상·손실된 장비를 정비·대체하는 속도에 좌우될 것임. 중국의 대규모 제조·조선 역량에 비해 미국의 방위산업은 평시 생산에 맞춰져 있어, 예산과 계약 규모를 늘려도 시설·인력·부품 공급의 제약으로 납기를 단축하기 어려움. 이러한 미-중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산업 전체의 생산량뿐 아니라 개별 업체의 증산 속도, 투자에 따른 병목 해소 효과, 국내 조달 기반과 적대국 공급망에 대한 의존도를 평가해야 함. 이러한 분석을 통해 취약한 공급업체와 공통적인 병목 요인을 식별하고, 병목 해소 투자와 공급망 다변화를 추진해야 함.

원문링크 클릭

본 발간물은 한국해양전략연구소의 저작물로서 인용 시 표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